

여든 네 번째

# 다솜이 차오르는 해돋이네 이야기

## 모두가 꽃이더라

오래전, 한 책을 읽다 옮겨 적은 문구예요. 휘뚜루 쳐다보면 죄다 잡초지만, 여유를 가지고 자근자근 바라보면 베어낼 것 없는 꽃이더라 말이지요.

흔하다, 진부하다, 틀렸다, 나랑 맞지 않다며 베는 걸 지나쳐 농약까지 뿌리곤 세상 무익한 듯 여기던 속된 마음이 제게 점철되어 있음을 봅니다. 저의 낫질과 뿌려던 농약에 죽어간 꽃들이 얼마나 많을는지요.

“베어버리자니 풀 아낀 게 없지만  
두고 보자니 모두가 꽃이더라.”

나란 존재가 꽃이길 원한다면,  
나 외에 모든 게 잡초이길 바라는 악한 마음만 지닌 것이 아니라면!

나를 둘러싼 모두가 꽃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 지나간, 그리고 펼쳐질 이야기

**이야기 하나** \* 10월 3일에서 12일까지 파푸아뉴기니(PNG)의 ‘나라’종족 신약성경 봉헌식에 다녀왔습니다. 일단, 봉헌식을 나누기 전에 파푸아뉴기니 사람들의 첫인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남아시아 역시 일 년 열두 달 더운 곳인데 그곳에서 만난 이들과 파푸아뉴기니 사람들은 사뭇 달랐습니다. 모든 행동도 말도 급하지 않은 그들은 창을 들고 종족을 지키던 전사의 후예라기엔 무척이나 나른해 보였어요. 기개나 패기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말이지요.

이곳은 자신의 나이를 아는 사람이 드물다고 합니다.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 싶었는데, 직접 보니 그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날씨는 고사하고 국민 대부분이 가난한데 상대적으로 물가는 비싸고, 성공에 대한 열정을 키울 환경도 안되니 그야말로 어제나 오늘이나 늘 같은 상황 가운데 ‘내가 누구인가’ 치열하게 고민할 필요도, 알 필요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아이’라는 열매를 한가득 씹고 있었는데, 입 안이며 치아가 선지피를 베어 문 것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지요. 환각 작용을 일으킨다는 부아이는 그들의 크고 예쁜 눈을 흐리멍덩하게 바꿔 놓았습니다. 일 년 내내 열대 과일이 흔하게 열매를 맺고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으니 배를 쫄쫄 굶는 일은 없기에 돈이 생기면 당장 부아이부터 사서 씹는다고 하더군요. 대도시인 포트모르즈비도 치안이 불안해, 여행객은 현지인과 동행하여 다니기를 당부 받는 지경이었습니다. 오히려 파푸아뉴기니는 시골로 들어갈수록 안전하다는 말도 들었지요.



### 처음 마주한 오로이 마을의 석양

그래서 더욱 나라종족이 살며 봉헌식이 열리는 ‘오로이’ 마을에 대한 기대가 생겼습니다. 트럭을 개조한 차와 비정상적으로 자리를 늘여 놓은 털털이 소형버스를 타고 울퉁불퉁한 오로이 마을까지 가는 동안, 우리는 두 개의 마을에서 큰 환대를 받았습니다. 첫째 마을 ‘모이까 알루’에서는 전통 찬양곡에 곁들인 환영 춤과 함께 열대 과일을, 두 번째 마을인 ‘알라알라’ 역시 춤과 전통음식을 대접해 주셨지요. 또한, 직접 만들어 목에 걸어준 꽃 목걸이의 향은 이제껏 맡아본 그 어떤 꽃의 향보다 진하고 달콤했어요.

긴 환대 속에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오로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전기도 없고, 건기인 탓에 강물도 소량만 흐르고 있었죠. 그러니 당연히 먹고 씻을 물조차 귀했습니다. 게다가 울창한 밀림을 생각하며 들어갔지만, 정작 오로이 마을은 밀림과는 거리가 먼 마른 흙바람이 날리는 평지였어요. 그저 높이 자란 바나나 나무며, 코코넛 나무가 그나마 내 머릿속 그림의 한 조각을 메꿔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라종족에겐 도시에서 보았던 결핍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핏빛으로 물든 입도, 몽롱한 눈을 가진 사람도 거의 볼 수 없었지요. 물론, 이미 거쳐온 ‘모이까 알루’와 ‘알라알라’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새벽이면 어린 소녀들이 강물을 길어 날랐어요. 그러니, 그 귀한 물을 최소한으로 써야 됨은 말할 것도 없었지요. 밤이면 딱 물 한 바가지로 땀과 흠이 범벅 된 얼굴과 몸을 간신히 씻었습니다. 당연히 머리 감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지요. 그저 ‘물 칠을 했다.’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마저도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또한, 그곳의 여인들이 입는 ‘메리 블라우스’라 불리는 통원피스 한 벌로 며칠을 지내는 것도 문제없더군요.

최소한의 음식과 최소한의 물, 그리고 최소한의 옷. 충분치는 않으나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봉헌식 아침, 주변 마을에서 봉헌식 참석을 위해 반나절 길을 걸어온 이들을 포함하여 각국에서 온 선교사들까지 정말 많은 이들이 기대와 설레는 모습으로 모이기 시작했지요. 주일 아침이었기에 예배드림으로 봉헌식을 열었습니다. 예배를 주관하는 분들은 모두가 정갈한 하얀색 옷을 입으셨고요. 우리에게 익숙한 찬송가는 누구랄 것 없이 화음을 넣어 각자의 모어로 불렀는데 그야말로 천상의 음악 같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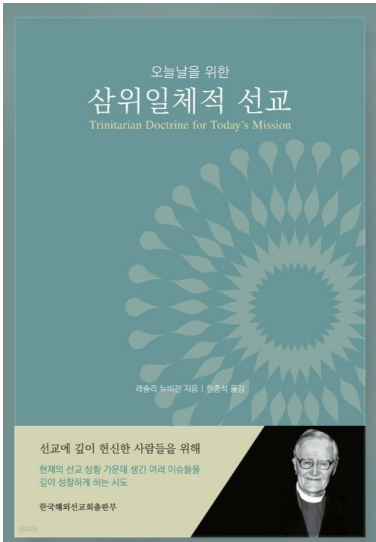


예배를 마친 후 성경이 봉헌되는 시간이 되자 마치 구약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운반하듯 4개 교단 대표가 교회 모형 속에 번역된 ‘나라족 신약 성경’을 담아 입장했습니다. 마이노(Maino/평화)라는 현판이 달린 그들의 교회에서 출발하여 봉헌식 단상까지 걸어오는 모습은 하나님의 평화가 흐르는 것 같았지요.

현재 나라족 크리스천은 1,200명가량인데, 앞으로 10년 안에 두 배로 늘어날 것을 기대하며 2,500권의 성경을 인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2,500권의 성경이 금방 동이 나서 2쇄를 찍는 날이 속히 오길 기도했습니다.

나라종족의 신약성경을 현지 번역자들과 함께 번역하신 김남수, 이덕신 선교사님 부부는 올 12월, 40년의 성경 번역 선교사로써의 삶에서 은퇴하십니다. 제가 쓴 두 분의 40년 인생은 2025년 난긱방언으로 1/2월 호에 기재 될 겁니다. 다음 편지에 그 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들 \*** 드디어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의 <오늘날을 위한 삼위일체적 선교(Trinitarian Doctrine for Today's Mission)>이 지난달 출간되었습니다. 올봄 내내 저를 키우고 인내케 한 서적이 눈앞에 나오니 그야말로 감개무량했어요. 추천의 글에 ‘글을 다듬고 가독성 높게 윤색해 준 김다솜 선교사’라는 문구



에 올컹했지요. 역시나 저는 앞에서 반짝이기보단, 누군가 반짝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참 잘 맞는다는 걸 확인했다고나 할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신 꿈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야기 셋** \* 초창기 발간부터 현재까지 <난곳 방언으로>에 게재되었던 원고들 중, 보관과 홍보에 적절히 사용할 만한 225개 글들의 윤색 작업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GBT 아카이브의 일환인 성경번역선교의 역사기록을 남기는 이 작업은 제게 주어진 부듯한 숙제이고요, 꼭 마치려 합니다.

**이야기 넷** \* <난곳 방언으로> 2024년 9/10월 호에 실릴 글들을 윤색하여 출간 발송했고, 현재는 내년도 1/2월 호 만들 준비 중입니다.

## 해든이네는요

요즘 각종 공주 드레스 입기에 푹 빠진 다린이는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왕관과 귀걸이까지 함께 장착한답니다. 봄부터 여름까지는 백설공주 드레스를 주구장창 입더니, 찬바람이 불면서 라푼젤과 신데렐라를 비롯하여 겨울왕국 엘사 드레스를 번갈아 입기 시작했어요. 그 나 이 때 해든이는 블럭쌓기를 좋아했지, 인형놀이나 공주 옷 입는 데는 흥미가 없었죠. 하여 공주 옷에 홀딱 마음을 뺏긴 다린이는 도무지 누굴 닮았을까 궁금해지기도 해요.

오늘 아침에는 엘사 드레스를 입고 렛잇고를 부르다가 엄마한테 도도한 얼굴로, “엄마, 나 오렌지 주스 한잔~” 하더라고요. 저는 ‘도도하다’고 썼지만, 사실 해든이는 ‘시건방진 공주 말투’였다고 했어요. 해든이가 “그렇게 무례하게 말하면 국물도 없다”라고 하니 그제야 공손하게 “엄마, 오렌지주스 주세요,” 하더라고요. 으하하!



입이 쉬지 않는 레리고 공주님과 온동네 뛰어다니는 동네 아저씨



완전체 합체!

현이는 19개월 남아답게, 몸을 활용한 모든 것을 좋아하지요. 뛰기, 춤추기, 구르기 등등. 아직은 레리고 공주 누나한테 밀리지만, 곧 누나를 이기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다린이를 잘 아는 분들은 말씀하시죠. 현이가 아무리 힘이 좋아도 누나의 말 한마디에 기선제압될 거라고요^^.

아이들을 키우며 함께 어른이 되어가는 지훈이와 해든이가 참 고맙습니다. 그저 겸손하고 건강한 네 식구 완전체로 살아가길 기도해 주세요.

# 함께 손 모아 주세요

1.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날마다 상기하도록 / 주님 닮은 자비를 실현하며, 몸의 약한 부위들이 건강해지도록
2. 뜻 깊은 송구영신을 하고, 내게 지니신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도록
3. GBT 역사가 담긴 문서를 포함한 모든 원고를 유익하며 흥미로운 자료가 되게끔 윤색 및 기록하는 것에 하나님 마음을 더하여 주시도록 / <난곳 방언으로 오디오북>을 통해 독자층이 확장되도록 / <난곳 방언으로/GBT격월간지>에 실릴 원고들을 수정하고 윤색하는 과정에 지혜 주셔서 원본의 내용을 잘 살리는 정갈한 글이 되도록
4. ‘기독교 드라마 대본 작업’ 강의안과 워크숍 준비에 유연한 사고와 창조력 그리고 영감까지 부어 주시며, 선교사들의 위기상황에 맞는 감정적 응급처치를 적절히 진행하는 따뜻한 전문 디브리퍼가 되도록
5. 해돋이와 지훈이가 행복한 마음으로 건강히 아이들을 양육하며, 감사가 넘치는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도록 / 다린이와 현이가 발달 주수에 맞게 자라며, 영, 육, 혼, 사회성 모두가 골고루 견비한 자녀들 되도록 / 가족 간에 잘 형성된 애착관계로 사랑이 충만하도록
6. 파송 교회인 **거룩한 빛 운동교회**가 지역사회의 심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따뜻한 신뢰관계를 유지하도록

## 다솜

.....  
[ha-nei\\_kim@gbt.or.kr](mailto:ha-nei_kim@gbt.or.kr) /  
[gbtwriter@gbt.or.kr](mailto:gbtwriter@gbt.or.kr)

## GBT 본부

.....  
1394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판교로 20  
신한데뷰오피스텔 406호

T) 031-421-5324

홈페이지) [www.gbt.or.kr](http://www.gbt.or.kr)



\*\*\*

앞에서 물 한 바가지의 감사를 말씀드렸죠?  
결핍을 처음 마주하면 감정의 핏줄까지 생기더군요.  
하지만, 최소를 믿도는 마이너스의 결핍을 경험하니  
물 한 방울만 더해져도 풍요롭게 느껴지던걸요?  
될 수 있으면 아주 길게 주어진  
모든 한 방울에 감사하는 날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날씨와 상관없이 내년 1월,  
숨마저도 따뜻한 소식으로 찾아뵙게요.

김다솜 드림.